

젊은 기술인들의 등용문

# 제 7회 UIPCG 국제주니어콩쿨 대회

## 종합우승은 벨기에가 차지

젊은 기술인들의 기술향상과 국제교류를 위해 세계양과자연맹(UIPCG)이 2년에 한번씩 개최하는 'UIPCG 국제주니어 콩쿨대회'가 지난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일본 동경에 있는 일본과자전문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각국의 예선을 거쳐 선발된 일본 프랑스 벨기에 등 15개국에서 2명씩 참가한 이번 경연에는 모두 30명의 젊은 선수들이 피에스 몽테(3단), 가토(타르트 또는 앙트르메), 그라세, 봉봉 오 쇼콜라, 파트 다망드(마지팬 세공), 각국의 스페셜리티 등 6개 부문에 걸쳐 열띤 경연을 벌인 결과 4개부문에서 1위를 한 벨기에의 P.르당선수가 종합 1위의 영예를 차지했으며 일본이 2위 스위스가 3위에 올랐다.

올해가 7회째인 국제주니어콩쿨대회는 세계양과자연맹의 회원국에 한해 참가할 수 있는 대회로 1982년 스페인대회를 시작으로 2

년에 한번씩 가맹국을 돌아 가면서 열리고 있으며 스페인 마드리드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양과자연맹은 현재 29개국의 가맹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번 대회는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가맹국중 처음으로 일본에서 개최됐다.

(협)전일본양과자공업회가 주관한 이번대회는 10월23일 15개국에서 8명의 여성기술인을 포함 30명의 기술인이 대회장인 일본과자전문학교에 모여 다음날 24일까지 이틀에 걸쳐 기량을 겨뤘다.

경기내용은 12시간 30분간의 제한 시간속에서, 피에스 몽테(3단), 가토(타르트 또는 앙트르메), 그라세, 봉봉 오 쇼콜라, 파트 다망드(마지팬 세공), 각국의 스페셜리티 등 6품목을 제작하는 것인데 젊은 기술인으로서 매우 어려운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작품심사는 호소우찌심사위원장이어 출전 각국에서

1명씩 선발된 15명의 심사위원에 의해 엄정하게 행해졌는데 자국의 참가선수의 심사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심사내용은 작품의 완성도, 작업 순서, 청결도, 기교, 미각 등 5항목으로 평가했다.

해를 거듭할 수록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이번 대회에도 심사위원들이 심사에 상당한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심사 바로 직전에 어렵게 만든 앙트르메가 무너지는 불운을 겪는 안타까운 장면도 있었다.

이번 일본개최는 콩쿨대회와 더불어 동경도청홀에서 연맹 총회도 열려 초청인사 350여명이 참가했으며 일본 천황의 동생부처가 참석하는 등 국제적인 행사의 면모를 과시하기도 했다.

한편 행사 주관을 맡은 (협)전일본양과자공업회는 참가선수와 심사위원 전원에게 교통편, 숙식, 관광까지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6개 부문에 걸친  
열띤경연에서 4개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종합우승  
벨기에의 P.르당씨의  
앙트르메를 비롯  
2위 일본,  
3위 스위스의  
3단 앙트르메 제품.  
(왼쪽에서 오른쪽순)

